

‘불장 증시’에 지난달 거래대금 3조5000억 몰렸다

전월 대비 44.6% 급증...코스닥만 1조3963억

대한조선 부진에 광주·전남 시가총액은 감소

코스피 지수가 4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9월 광주·전남지역의 주식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9월 시가총액이 551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난 8월 코스피 상승을 한 대한조선의 시가총액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14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의 ‘2025년 9월 광주전남 상장법인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역 내 상장법인(38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6% 감소한

32조9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16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8% (5714억원) 줄어든 31조381억원이었다. 대한조선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1926억원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코스닥 상장 22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1% (199억원) 늘어난 1조8645억원이었다.

지역 내 상장법인 38개사의 시가총액 비중은 국내 전체의 1.0%로 전월 대비 0.1%p 감소했다.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3조 5065억원으로 전월 대비 44.6% (1조810억원) 증가했다

시장별로 코스피는 2조1101억원으로 전월 대비 26.3% 늘었다. 코스닥은 1조 3963억원으로 85.2%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코스피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증가액 상위 3개 종목은 조선내화(1781억원(156억원 ↑)), 화천기공(722억원(56억원 ↑)), 광주신세계(2427억원(48억원 ↑)) 순이었다.

코스닥은 한국첨단소재(820억원(229억원 ↑)), DGP(397억원(127억원 ↑)), 오이솔루션(1078억원(80억원 ↑)) 순으로 확인됐다.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3개 종목의 경우 코스피는 조선내화(9.6%), 화천기공(8.4%), 대우에이텍(2.9%) 이었고, 코스닥은 DGP(47.2%), 한국첨단소재(38.7%), 오이솔루션(8.0%) 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 농촌 빈집 1만6000호 방치 윤준병 의원 “정비 예산 부족”

전남 농촌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마을 공동체 위기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공간 재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 예산과 사업 속도는 그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농어촌 빈집은 13만4009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7만8095호(58.3%)를 차지하며, 도시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전남은 1만622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농어촌 빈집의 20.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남의 빈집 가운데 7277호는 철거가 필요하고, 8948호는 재생 가능 빈집으로 분류됐다.

전남에 이어 전북(1만3155호), 경북(1만3117호), 경남(1만2850호)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정부의 정비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점이다. 농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예산은 103억3200만원으로, 전국 1292호 철거에 그친다. 빈집 1호당 약 1600만원(국비 50%)이 지원되는 규모지만, 전국 철거 필요 빈집 2만9681호의 4.4% 수준에 불과하다. 이 속도대로라면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모두 철거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린다. 이소홍 기자 photo25@

광주상의, 회원기업 대상 산재·노동사건 대응 교육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1일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노동사건 대응 실무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산업재해의 유형 및 후속 조치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노무법인 김용민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 산업재해 및 후속조치를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수사, 노란봉투법 등 각 과정별로 세분화해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산업재해와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기업 실무자들이 다양한 노동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고 염홍섭 ㈜서산 회장 1주기 추모식



14일 장성군 진원면 성암농원에서 엄수된 고 염홍섭 ㈜서산 회장 1주기 추모식에서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추모객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성실·나눔 기업가 정신 기려...신뢰·기술로 보답”

장성 성암농원사...유족·임직원·지역 인사 참석

㈜서산 창업주 고 염홍섭 회장의 1주기 추모식이 14일 오후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성암농원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박흥석 하남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 정기섭 고운시티아이 회장, 염종학 서산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해 반세기 동안 지역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진 고인의 삶을 기렸다. 추모식은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사, 헌화 등 순으로 진행됐다.

고 염홍섭 회장은 지난 1974년 서산 콘크리트를 창립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자립 기반을 세웠다. ‘품질은 기업의 양

심’이라는 철학 아래 꾸준한 설비투자 와 기술혁신을 이어가며 ㈜서산을 비롯 해 ㈜성암아스콘, ㈜성암에너지, (사) 성암복지문화재단 등 급직한 계열사를 이끌었다.

고인은 현장 중심의 경영으로 생산 자동화와 환경 개선을 선도했고, 노사 상생을 실천한 모범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경영철학은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졌다.

평생을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지원에 헌신한 그는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을 꾸준히 기부했다. 특히 총 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10억원을 쾌척

하는 등 교육 기반 확충에 힘썼으며 성암인터넷설립과 평생교육 발전기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했다.

(사)한국경영사학회는 2018년 명예 회장에 ‘창원경영자대상’을 수여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이자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헌신한 경영자’로 평가했다. 생전 그는 “기업은 이익보다 신뢰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말을 즐겨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 관계자는 “창업주가 일궈온 기반 위에 신뢰와 기술로 보답하겠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 염홍섭 회장은 지난해 10월 향년 96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양자컴퓨팅 강세...광주 한국첨단소재 두각

15.76% 오른 4040원 마감 JP모건 기술투자 발표 영향

양자컴퓨팅 관련주가 강세인 가운데 광주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국첨단소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첨단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15.76% (550원) 오른 4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첨단소재는 광통신 부품 제조사로 광주 북구 첨단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지난달 광주·전남 코스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종목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한국첨단소재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22.21% (775원) 오른 426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자컴퓨팅 관련주로 나뉜 아이원플러스와 포톤도 전 거래일보다 각각 23.51%, 14.45% 오른 1408원과 3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케이씨에스, 엑스케이트, 아이씨티케이, 아이티센피엔에스도 직계는 4%대에서 최고 15%대까지 주가가 급등했다.

양자컴퓨팅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양자컴퓨팅 등 주요 첨단 기술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장에 앞서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와 회복력에 핵심적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총 1조 5000억 달러(2142조원) 규모의 대출·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투자를 단행하는 4가지 핵심 분야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보안, 양자컴퓨팅을 포함한 첨단·전략적 기술 분야, 핵심 광물과 로봇공학 등을 포함한 공급망 및 첨단 제조, 국방·항공우주, 에너지 등을 제시했다.

이번 투자 계획에 따라 전남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어그 팝업스토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내년 1월까지 겨울 필수품으로 인기 있는 호주 양털 슈즈 브랜드 ‘어그’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스테디셀러인 부츠를 비롯해 로퍼, 블러퍼 등 보온성과 착용감이 좋은 어그 슈즈를 만나볼 수 있다.

BUKGWANGJU NONGHYUP

농업인의 꿈이 있는 북광주농협

신뢰받는 농협,
고마운 농협이 되고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북광주농협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2 / 062-571-0481